

맨체스터市에 電氣버스 出現



사진 : 맨체스터市에 出現한 전기버스

보통버스는 아무리 좋은 트란스미션 장치라도 엔진이 기어를 바꿀때 급작스런 충격과 흔들림이 있는 데 電氣버스에선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또 石油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부족해져 가고 있으나 電氣는 석탄 핵에너지 또는 아직 開發되지 않은 다른 연료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걱정이 없다. 다만 이 自動車들이 充分한 양의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좋은 축전방식이 研究開發될 때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自動車들은 아무런 개스를 내뿜지
진이 전력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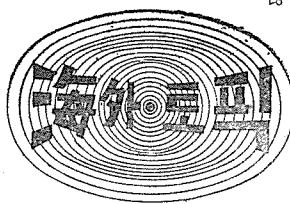
英國 最大工業도시의 하나인 北部 잉글랜드地方인 맨체스터市에선 최근 都市의 대중交通手段으로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1층 또는 2층의 電氣버스를 運行하고 있다.

이 電氣버스는 버스위에 電線도 없고 아래에는 궤도도 안깔린 길을 보통 버스가 개솔린을 담고 다니듯 자체내에 전기를 충전하여 운행된다.

전기버스가 갖고 있는 最大的 장점은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타이어 바퀴소리 정도라는 고요함이며 부드럽고 매끄럽게 움직이며 在來式

【英國大使관 제공】

않아 都市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엔
必要할 때만 使用해 에너지를 절
약할 수 있다.



핵 습도 밀도 측정계 開發

美 Soiltest社에서 開發한 핵습도·밀도 측정기는 土壤과 아스팔트 혼합물 등 측정대상을 현상그대로 둔 채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기구로 1分內에 結果를 알 수 있다.

습도와 밀도가同一 글자판위에 피트와 미터법으로 表示되는데 築築作業이 지정된 堅固度와 습도제한량을 지키고 있나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측정은 반사電波에 의해서 직접적인 方法으로 이루어지며 채 충전되는 배터리로 가동시킬 수 있다. 半導體의 回路를 갖고 있으며 무게는 23파운드이다.

【USIS 제공】



사진 : 핵 습도 밀도 측정계